

- 주요 뉴스: 미국 11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소비 호조로 내년 금리인하 기대 다소 약화
 - ECB 렌 위원, 금리인하 방향은 명확. 세부 내용은 회의 때마다 결정할 필요
 - 독일 12월 Ifo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하락. 경기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반영
 - 중국 관계자, 내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확대 예상. 경기 부양 등이 목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소매판매 결과, 내년 금리인하 기대 약화 등이 영향
 - 주가 하락[-0.4%], 달러화 강세[+0.1%], 금리 강보합[+0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차익매물 출회, 반도체 관련주 약세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은행주 중심의 매도 증가 등으로 0.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11월 소매판매 등으로 상승
유로화 가치는 0.2% 하락, 엔화 가치는 0.5%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FOMC 앞두고 관망세 등으로 강보합
독일은 12월 Ifo 경기기대지수의 부진 등으로 2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37.6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39.6원, 0.18% 상승). 한국 CDS 약보합

주 가					환 율					
		12/17일	12/16일	전일대비			12/17일	12/16일	전일대비	
주 가	미국	6,050.6	6,074.1	-0.39%	국채 금리 10y	미국	4.40%	4.40%	+0bp	
	유럽	513.66	515.83	-0.42%		독일	2.23%	2.25%	-2bp	
	중국	3,361.5	3,386.3	-0.73%		영국	4.52%	4.44%	+8bp	
	일본	39,365	39,457	-0.24%		CDS 5y	한국	36bp	36bp	-0bp
	한국	2,456.8	2,489.0	-1.29%			중국	62bp	61bp	+1bp
환 율	달러지수	106.94	106.86	+0.07%	위험 지표	EMBI+	-	359	-	
	유로화	1.0491	1.0512	-0.20%		VIX	15.87	14.69	+8.03%	
	엔화	153.46	154.15	+0.45%		WTI유	70.08	70.71	-0.89%	
	위안화	7.2842	7.2839	+0.00%	원자재	구리	409.1	414.4	-1.25%	
	원화	1,437.1	1,436.0	-0.08%		금	2,646.8	2,652.7	-0.22%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소매판매, 예상치 상회. 소비 호조로 내년 금리인하 기대 다소 약화

- 11월 소매판매는 전월비 0.7% 늘어 전월(0.5%) 및 예상치(0.5%) 대비 높은 증가율 기록. 소매판매 컨트롤 그룹 역시 0.4% 증가하여 전월(-0.1%) 대비 양호한 모습. 변동성이 큰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소매판매 역시 전월비 0.2% 늘어 최근 소비가 견조한 상황임을 시사
- 세부적으로 13개 부문 가운데 7개 부문의 판매가 늘었고, 특히 자동차 판매가 금리인하 및 연말 할인 판매 등으로 3년래 최고 증가율 기록. 온라인 판매 및 건설 자재 역시 양호한 흐름 지속. 반면 식료품 및 식당 판매는 감소. 이번 결과는 전통적인 쇼핑 시즌에 양호한 소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
- 다만 시장에서는 양호한 소비 지속으로 '노 랜딩(no-landing)'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내년 금리인하 폭이 예상보다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BMO Capital Markets). 12월 FOMC의 0.25%p 금리인하 가능성은 높지만,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 전망은 증시 및 채권시장에 상당한 영향 미칠 소지(Morgan Stanley)
- 한편, 11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0.1% 줄어 예상치(0.3%) 하회했고, 이는 유틸리티 및 광산 부문 부진에 기인. 다만 전월(-0.4%) 대비 감소세는 둔화.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는 전월비 보합(46→46). 그러나 향후 6개월 전망의 경우 트럼프의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66을 기록하며 '22년 4월 이후 최고치
- 10월 기업재고는 전월비 0.1% 늘어 전월(0.0%)의 보합 수준에서 증가로 전환. 관세 강화 우려로 기업재고는 당분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4/4분기 GDP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투자자 및 경제학자 조사, 미국 주식 비중은 사상 최고. 고물가 우려도 제기

- BofA의 글로벌 펀드매니저 조사에 따르면, 미국 증시 비중이 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36%이며, 이는 사상 최고치. 한편, 블룸버그의 경제학자 대상 조사에서는 내년 PCE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평균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이는 이전 조사(2.3%) 대비 높은 수준

■ ECB 렌 위원, 금리인하 방향은 명확. 세부 내용은 회의 때마다 결정할 필요

-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ECB의 렌 위원은 ECB가 향후 추진할 통화정책 방향이 매우 분명하다며 금리인하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다만 인하의 폭과 속도는 매 회의마다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

■ 독일 12월 Ifo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하락. 경기 둔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반영

- 12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84.4로 전월(87.0) 대비 하락.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가 만성적 형태로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도 더해졌다고 분석. 다만 ZEW에서 조사한 12월 경기기대지수는 상승(7.4 → 15.7)했고, 이는 향후 금리인하 기대 및 최근의 주가 상승 등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영국의 3개월(8~10월) 임금 상승률, 5개월 만에 최고치. 금리인하 기대는 약화

- 8~10월의 임금 상승률은 5.2%를 기록했고, 이는 3~5월 이후 최고 수준. 특히 민간부문의 상승률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 이번 결과로 향후 경기 침체 진입 우려가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금리인하 기대도 약화

■ 중국 관계자, 내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확대 예상. 경기 부양 등이 목적

-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종료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당국은 내년 재정적자 규모를 GDP의 4% 수준까지 높일 예정. 이는 금년(GDP의 3%) 대비 1%p 높은 것으로, 금액으로 환산 시 1.3조위안. 당국은 늘어난 재원을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할 전망. 한편, 내년 성장률 목표는 5.0%로 기존 수준을 유지

■ 캐나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월비 둔화. 추가 금리인하 전망을 뒷받침

- 11월 소비자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은 1.9%로 전월(2.0%) 대비 둔화. 이는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좀 더 공격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해도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유도(Bloomberg Economics)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18 현지시각 기준)

- 미국 FOMC, 11월 주택착공 및 건설허가, 유로존 11월 소비자물가
- 독일 중앙은행 나겔 총재 발언, 영국 11월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미국 대선 이후 주요 동향 및 해외시각

■ [주요 동향] 트럼프, 취임 직후 에너지 개발 행정명령 추진. 지지율은 1기에 비해 저조

- **트럼프, 취임 즉시 에너지 개발 행정명령 추진** : 인수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직후 국내 석유 및 가스 개발 장려 계획을 추진할 예정. 한편 한 소식통은 취임 후 수 주 내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라고 언급. 이는 관세 부과, 전기차 및 배터리 관련 지원 중단, 파리기후협약 탈퇴 시도 등을 포함
- **트럼프 지지율, 1기 대비 낮은 수준** : Reuters/Ipsos 설문조사 결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41%를 기록했고, 이는 '16년 대선 승리 직후(51%) 대비 저조한 수준. 특히 민주당 지지자 중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10%로 '16년 당시 25%와 비교 시 큰 폭 하락. 증폭되는 정치적 양극화의 여파인 것으로 추정
- **트럼프, 언론과 여론조사원 상대로 소송 제기** : 트럼프 당선인은 Des Moines Register 신문과 J. Ann Selzer 여론조사원을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11월 발표된 여론 조사에서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다고 주장. 최근 트럼프의 언론사 상대 법적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
- **중국, 트럼프와 협력 희망** : 왕이 외교부장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이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원한다고 발언. 다만 미국의 불법적 중국 압박에 단호히 반대하며, 특히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에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 **차기 우크라이나 특사, 키예프 방문 예정** : 케로그 특사 지명자는 1월 초 키예프를 방문할 계획.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우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

■ [해외시각] 트럼프 정책, 卐정부의 소송 승소율은 부진 예상. 캐나다 정치권에도 영향

- **미국 卐정부의 트럼프 정책 법적 대응, 승소율은 부진할 전망** : 트럼프 1기 당시 민주당이 집권한 卐정부가 트럼프 정책에 소송을 제기해 높은 승소율 기록. 최근에도 이만·환경·의료 정책 관련 소송을 준비하지만, 트럼프의 대규모 연방 법관 임명으로 사법부가 보수화되어 卐정부의 승소 가능성은 당시에 비해 낮을 전망(Reuters)
- **트럼프 관세, 캐나다 정치권에도 영향** : 캐나다 프리랜드 부총리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대한 트뤼도 총리의 인일한 대응을 비판하며 사임. 트럼프의 압박이 트뤼도 내각 균열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캐나다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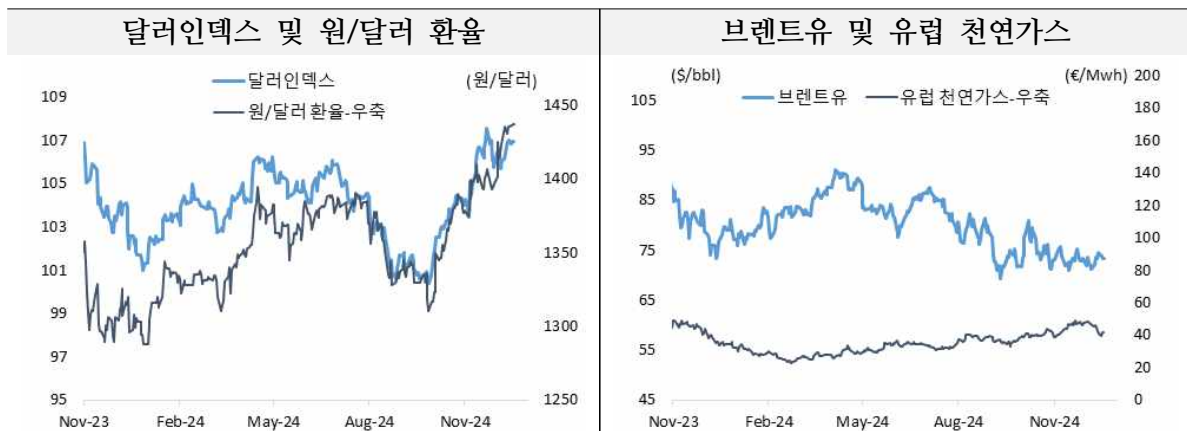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연준의 내년 금리인하 종료 논의는 시기상조. 경기 악화 가능성 고려할 필요 - 블룸버그**
(Calling an End to Fed Rate Cuts Is Premature)
 - 12월 FOMC에서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은 내년 금리인하 종료 여부에 관심. 그러나 금년 최고 수준에 가까운 실업률과 부정적인 주택 착공 전망은 오히려 '25년 금리인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
 - 핵심 노동인구(25~54세) 취업자의 현저한 감소로 확인되는 구직난은 심각한 수준.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인력 감축 계획과 여전히 높은 모기지 금리 등에 의한 주택건설 감소 가능성은 해당 부문의 실업 증가를 유도할 소지. 이에 연준은 지속 가능한 고용 회복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 금리인하 기조 유지가 합리적
- **미국 달러화 강세, 트럼프의 달러화 약세 선호 불구 내년에도 지속 예상 - Financial Times**
(Wall Street bets Trump will fuel further dollar gains)
 - 트럼프 당선인은 자국 내 제조업 보호를 위해 달러화 약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트럼프의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고려한다면, 구조적으로 상당 기간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다수의 투자은행들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일부는 내년 달러화와 유로화 가치의 등가(parity) 성립을 전망(Deutsche Bank)
 -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여타 주요국에 달러화 약세 유도를 위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최근의 미국 경제 여건(여타국 대비 양호한 경제 성장 및 높은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면, 달러화의 약세 전환은 기대난. 환율은 결국 각국의 기초 경제 여건에 좌우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AllianceBernstein)
- **중국과 미국의 마라라고(Mar-a-Lago) 협정, 합의 가능성은 낮은 편 - Financial Times**
(China would balk at a sweeping Mar-a-Lago accord)
 - 중국은 위안화 약세 등으로 대규모 무역 흑자를 지속. 그러나 이는 트럼프 당선인의 달러화 약세 의지와 상충. 이에 일부에서는 향후 위안화 강세 및 달러화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간 마라라고(Mar-a-Lago) 협정 체결 가능성을 제기
 - 그러나 다음의 이유로 중국은 해당 협정의 타결을 수용하지 않을 전망. 첫째,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 교훈(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둘째, 수출 주도 경제 구조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유리. 최근 경제 여건(부동산 경기 침체, 디플레이션 등)은 위안화 강세가 부담. 넷째, 인민은행이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하는 기존의 정책 기조와 상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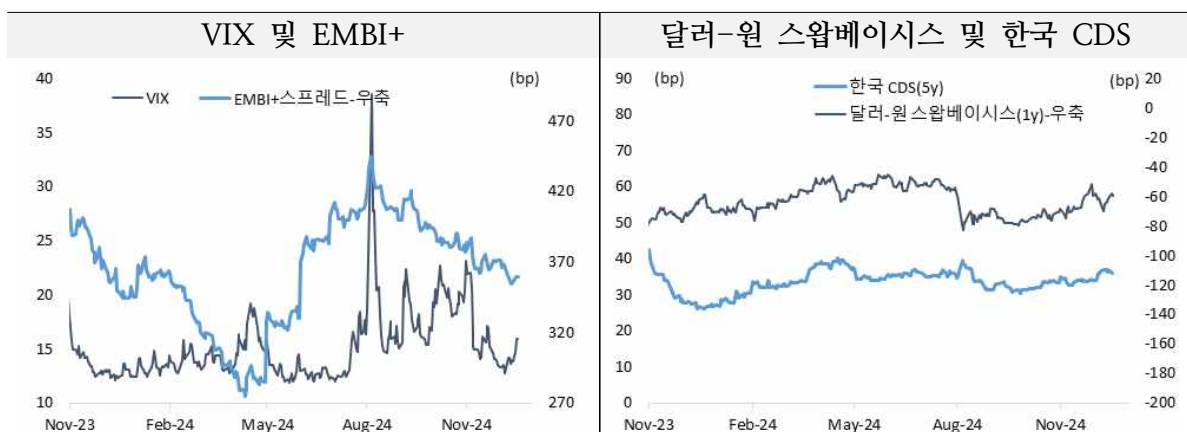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